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제언 —

유홍준 (명지대학교 교수)

1. 도로망의 건설과 문화권의 이동

본래 지역 개념은 생활문화의 동질성 속에서 형성된다.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서 도(道)의 개념도 자동차가 없던 시절 생활문화권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기차,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 의해 분리됐던 생활문화가 동일문화권으로 형성되는 수가 많으며, 기존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휴전선으로 북쪽이 막히면서 강원도 철원은 경기도 북부문화권과 동화되었고, 경기도 가평은 강원도 춘천과 같은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고속도로 건설로 합천 해인사는 사실상 고령 해인사로 되었고, 청도 운문사는 경산 운문사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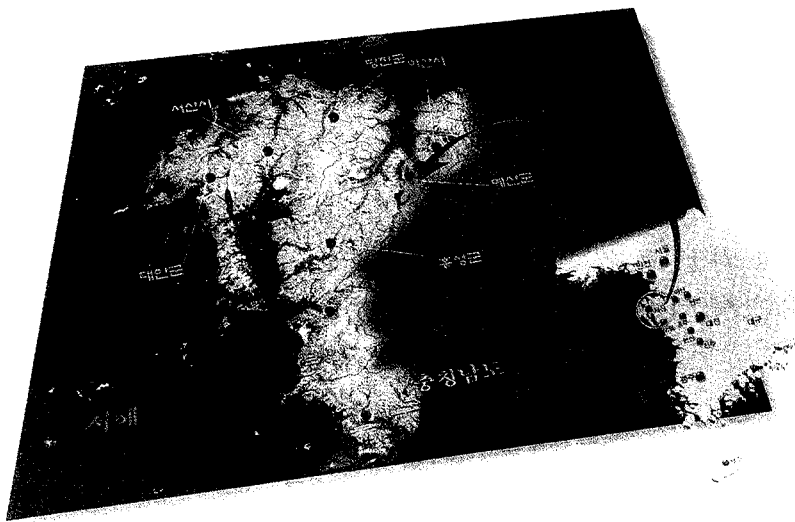
반대로 새로운 교통시설의 건설로 잃어버린 문화권이 다시 옛날의 문화권 전통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내포문화권의 재형성이라고 생각한다.

2. 내포문화권의 역사적 정의

내포지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조선시대에는 거의 일반

화된 명칭이었다.

오대산에서부터 뿔어내려온 차령산맥 줄기가 서해바다에 다가오면서 그 맥을 주춤거리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면서 마지막 용틀임을 하듯 북쪽을 향해 치솟은 땅이 가야산(伽倻山 : 678m)이다. 이리하여 차령산맥 위쪽 가야산을 둘러싼 예산, 서산, 태안, 나아가 당진, 아산에는 비산비야의 넓은 들판이 생겼다. 옛날에는 여기를 '내포(內浦)'라 했고 지금도 이 일대를 내포평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사는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도 마치 옆마을 사람처럼 느끼는 친근한 동향의식을 갖고 있으니 내포 사람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성 싶다.

내포는 농사와 과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안면도·완도의 조기잡이, 간월도의 어리굴젓이 상징하는 바다의 풍요가 있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이증환은 『택리지(擇里志)』의 팔도총론에서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천은 평범하고 아름답고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여 서울의 세력있는 집안치고 여기(충청도)에 농토와 집을 두고 근거지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다. …… 충청도는 내포를 제일 좋은 곳으로 친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은 큰 바다

요, 북쪽은 큰 만(灣)이고, 동쪽은 큰 평야, 남쪽은 그 지맥이 이어지는바, 가야산 둘러 열 개 고을을 총칭하여 내포라 한다. 내포는 지세가 한쪽으로 막히어 끓기었고 큰 길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진, 병자 두 난리의 피해도 이곳에는 미치지 않았다. 토지는 비옥하고 평평하고 넓다. 물고기, 소금이 넉넉하여 부자가 많고 또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도 많다. …… 다만 바다 가까운 곳은 학질과 부스럼병이 많다.”

3. 21세기 첨단사업으로서 문화관광

지역문화의 개념은 본래 농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산업사회로 들어와서는 공장 산업 즉 공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세기말로 들어서면 우리사회는 다시 3차산업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개편되고 있는데 21세기는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산업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촉망받는 산업은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첨단산업의 꽃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반도체·전자사업이 인간의 생활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또는 다르게 바

꾸어 놓은 것이고, 그런 변화된 삶에서 기초하여 인간 모두가 새롭게 즐기는 여가문화로서 관광문화가 오히려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피어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관광은 어떤 특정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의 영위자만이 갖는 특수 문화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누리는 여가활동의 필수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퍼져나갈 경우 관광산업은 더욱 활발히 지향될 것이다.

4. 관광수입의 종류

관광산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입형태는 대단히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교통·숙박·식사비용이 관광비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을 관광을 제공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다시 분리해 보면 외래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마시고, 관광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는 일체의 소비행위가 지역의 관광수입으로 되는 것이다.

흔히 관광수입을 계산할 때면 관광명소의 입장료와 주차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것은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계산법이고 실제로 창출되는 관광수입은 오히려 숙박·요식업에서 더 일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포지역에 1박2일로 답사 온다면 그는 제아무리 쓰지 않아도 숙박비·식사비로 5만원 이상을 써야만 한다. 그것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든 5만원이 내포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관광국가들이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때 국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되도록 오래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광수입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내포지역의 관광사업도 이 점에 크게 착안해야 한다.

5.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관광의 출발은 자연관광, 아름다운 산, 바다, 강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것은 사실상 관광·여행·답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연관광은 점차 문화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마침내는 관광은 곧 문화관광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내포지역은 다행히도,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을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구역 중 아주 중요한 관광문화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이 관광문화권으로 엮어진 것을 보면 경주문화권, 안동문화권,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남도문화권, 한려수도문화권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내포문화권이 독자적인 관광문화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6. 내포관광문화권의 과제

내포지역이 관광문화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보완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전환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숙박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 ① 덕산·도고 온천 지역
- ② 만리포·천리포 해수욕장 지역
- ③ 수덕사입구를 비롯한 문화재 지역
- ④ 순수민박(B&B)의 개발

2) 음식점에 대한 종합대책

- ① 향토음식의 개발
- ② 일품요리와 일반 가정식 요리
- ③ 외국인을 위한 배려
- ④ 계절음식

3) 문화재에 대한 관광차원의 정비

- ① 문화재의 보호와 보수
- ② 주차장 정비
- ③ 안내원과 안내 표지판

7.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제언

내포지역이 문화관광권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평소 생각을 제안한다.

1) 관광·답사코스의 개발

관광객들이 관광·답사를 즐기는 방식을 외지 관광객입장에서 편리하고, 유익하고, 감동적으로 엮어 제시해야 한다.

- ① 백제불상의 순례 : 예산 사면석불 - 서산마애삼존불 - 태안마애불
- ② 가야산 순례 : 수덕사 - 해미읍성 - 개심사 - 서산마애불 - 보원사터
- ③ 역사인물 탐방 : 아산 현충사 - 예산 추사고택 - 윤봉길 생가 - 만

해생가

- ④ 내포의 고건축 : 맹씨행단 - 추사고택 - 수덕사 대웅전 - 개심사

2) 비지팅 하우스의 설치

역사인물을 많이 배출한 내포지역으로는 역사인물 유적지의 연고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 ① 생가 또는 묘소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비지팅 하우스(Visiting House)를 만들어 방문객이 그 역사인물을 심도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종래의 관리사무소는 생가 또는 묘소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오히려 유적지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으므로 과감히 해체시키고 유적지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옮겨야 한다.

- ③ 주차장은 유적지로부터 멀수록 좋다. 주차장을 유적지 대문에 만든 것은 모두 길 건너편 또는 유적지 초입으로 옮겨 평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비지팅하우스 건물은 현대건축으로 유적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검소한 건물로 해야 한다.

- ⑤ 비지팅하우스는 전시내용물을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충실하고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제주도 추사유배지 기념관은 내용의 부실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임)
- ⑥ 내포지역의 역사인물 중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특히 강조될 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특별 대우를 해야 함. 모두 형평성을 내세우면 관광은 성립하지 않음.

8. 결론

내포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차로 불과 2시간 안에 다다를 수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로 순환코스를 만들 수 있어 문화관광지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2002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관광버스(일본의 비둘기 버스)같은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